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6권 제3호-2020년 9월
http://dx.doi.org/10.17662/ksdim.2020.16.3.073

ISO 37001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전 병 호** · 김 재 영*** · 강 병 구****

A Study on the improving ways for effective operation of ISO 37001

Jun Byoungho · Kim Jaeyoung · Kang Byunggoo

〈Abstract〉

'ISO 37001 –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one of the Business Ethics of Global Standards, is a new standard to help organizations fight bribery and promote an ethical business culture which was developed in 2016. ISO 37001 can provide the tools and systems to greatly reduce the risk and help organizations deal with it effectively if it does arise.

After enforc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Korean government standardized ISO 37001 harmoniz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to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in 2017. It is meaningful in that Korean companies have localized regulation which applies to global standard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About 100 organizations have adopted ISO 37001 as in the first half of 2019. So far many side effects of other ISO certifications have been recogn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ISO 37001 in Korea for effective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SO 37001 in Korea. It can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improving ISO 37001 to manage bribe and corruption effectively.

Key Words : ISO 37001, ABMS, Global Business Ethic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mproving Ways

Ⅰ. 서론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ISO 37001은 조직의 뇌물 및 부패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으로서 지난 2006년 10월 발행되었다. ISO 37001은 영국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던 BS 10500:201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28개국 약 80여 명의 전문가가 ISO 37001 표준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전 세계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요구사항이 모든 조직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분야

* 본 연구는 2020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0-0219).
**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주저자)
***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 조교수
****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

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규격으로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 2].

ISO 37001은 반부패경영과 관련한 글로벌 기준서라는 큰 특징을 갖는데, 반부패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글로벌 법규범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적으로 보완 및 강화를 하고 있다. ISO 37001의 국내 적용 필요성을 공감하여 2017년 11월 'KS A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이라는 명칭으로 KS 부합화하였다. 전 세계 최초로 진행된 ISO 37001의 KS 표준화 작업은 ISO 37001(2016)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국문화하여 공표함으로써 국내에서 통용할 수 있는 법규범화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2].

2019년 상반기까지 국내 인정기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서 인정(accreditation)을 받은 8개 인증기관이 공공기관, 대기업,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약 100개의 ISO 37001 인증을 발급하였다[3]. 그 이후 3개 인증기관이 추가로 ISO 37001 인증에 대해 인정을 받았으며, 약 50~60개의 인증이 추가 발급되어 2020년 현재 국내 ISO 37001 인증 건수는 전체 약 160여개로 확인되고 있다[4].

정부는 2018년부터 반부패 개혁 및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ISO 37001 인증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5]. 그러나 반부패 관리를 위해 ISO 37001 인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국내 ISO 인증제도는 '신뢰성' 문제를 많이 지적받아 왔는데, 과열 경쟁으로 인한 인증의 남발 및 부실인증, 관리 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로 인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6]. 반부패 관리 및 척결을 위해 ISO 37001 인증이 건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ISO 인증제도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부패 관리를 위해 ISO 37001 인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입 초기에 있는 ISO 37001 인증의 국내 운영실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반부패 및 반부패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연구는 중요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만 머물고 있으며[1, 2, 7-9], 실태조사와 같은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상반기까지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기업과 인증을 발급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반부패 관리를 위한 ISO 37001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ISO 37001 인증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은 2016년 10월 제정된 규격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규격이다. 반부패와 관련된 국제표준이 필요하다는 국제 사회의 요구와 그 효용성에 대한 기대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ISO가 영국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던 BS 10500:201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을 기반으로 ISO 37001이 제정되었다[1, 2].

ISO 37001은 조직의 부패방지 문화촉진과 투명성, 신뢰성 강조 및 부패 예방을 목표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부패 예방, 감지, 해결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경영관리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글로벌 그룹들이 청렴한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 ISO 37001을 인식하고 인증을 취득하였다[2, 3]. 싱가포르와 페루 정부는 반부패 관리

를 위해 ISO 37001을 도입하였으며[10], 미국의 Wal-Mart 및 Microsoft와 같이 다양한 공급업체들과 거래를 해야 하는 기업은 B2B 거래상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미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였다[11].

우리나라는 2019년 상반기 현재 8개의 인증기관에서 약 100개의 기업 및 기관이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였다[3]. 특히 제약업계는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약 산업의 리베이트 악순환을 윤리경영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고자 협회 차원에서 ISO 37001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제약업체들이 인증을 취득하였다[12].

그러나 다른 ISO 인증과 비교하였을 때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기관의 수는 인증이 도입된 시기에 비해 다소 적으며, 그 중 상당수가 공공 기관 및 제약업체에 편중되어 있다[3]. 2019년 상반기까지 인증을 취득한 업체 100개 중 공공 기관이 53개 일반 기업이 47개이며, 일반 기업 중 제약업체가 약 30여 개에 달한다. 공공 부문에 비해 민간 산업 부문의 인증 획득이 저조한데 이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ISO 37001 인증에 대한 인지도의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다[13].

2.2 국내 ISO 인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ISO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ISO 표준에 따라 인증해주는 민간 자율임의인증제도로서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대표적 인정기구로는 미국의 ANAB, 영국의 UKAS, 일본의 JAB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재)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인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6].

품질보증에 관한 ISO 9001을 시작으로 환경(ISO 14001), 보건 및 안전(ISO 45000), 식품안전(ISO 22000), 정보보안(ISO 27001),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2, 14]. 2018년까지 KAB에서 인정받은 50여 개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건수(ISO 9001, ISO 14001)는 42,128건에 달하고 있으며, 약 100여 개의 외국계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것을 포함하면 약 6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4].

전 세계 약 120여 개국에서 ISO 인증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이 품질보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으로 해외수출 시 품질보증 수단으로 ISO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2, 6]. 특히 ISO 14001의 경우 국제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되고 있다[6]. 국내에서도 ISO 인증을 취득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계약 참가 자격 부여, 인증 지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16].

그러나 1993년 최초 도입된 이래 ISO 인증제도의 신뢰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인증기관의 자격 요건, 경쟁체제, 그리고 관리 감독의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6, 16-18].

첫 번째로 인증의 부실 및 남발의 주된 요인은 인증기관의 자격 요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인증기관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의 상업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018년 말 현재 KAB의 인정을 받은 ISO 인증기관 중 비영리기관/공공기관은 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다. 국내에서 인증 업무를 하는 외국계 인증기관 역시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이다. 타 인증제도와 달리 정부가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 반부패를 다루는 ISO 37001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기관의 자격 요건의 제한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증기관의 경쟁체제 측면이다. 경쟁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경쟁 논리를 앞세워 인증기관 지정을 늘리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한계점을 넘어 과당경쟁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인증의 상업화가 가속화되어 부실 인증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KAB은 초기 5년 동안

20개 이상의 인증기관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증제도 도입 초기 5년간 인증서 발급 건수가 9,000건으로 2018년 말 현재까지 발급된 인증서의 30%에 달한다. 포화된 인증 시장은 자연스럽게 저가 인증, 컨설턴트의 개입, 심사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2017년 도입된 ISO 37001 인증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30여 개인데 그 중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이 11개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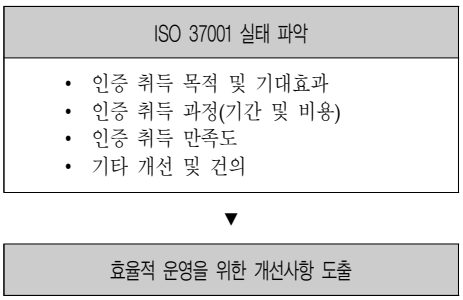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부실인증 신고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실 인증을 발급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인증기관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인정기구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상황에서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외국계 인증기관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요 부실인증의 유형으로는 중복심사와 자문규정 위반이 있다. 중복심사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사원은 하루 1개 기업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문규정 위반은 인증기관에 소속된 심사원이 컨설팅을 겸업하면서 동일기업에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직 도입 초기인 ISO 37001이 확산되고 건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ISO 인증제도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반부패를 다루는 ISO 37001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인증을 확산함과 동시에 부실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Ⅲ. 연구 문제 및 방법

ISO 37001 인증은 반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 사회 구축을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인증이다. 반부패 관리를 위해 ISO 37001 인증의 확산이 필요하나, 기존의 ISO 인증 사례를 교훈 삼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ISO 37001 인증의 국내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9년 상반기까지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목적 및 기대효과, 인증 취득 소요 기간 및 비용, 인증 취득 만족도 등의 실태와 기타 건의 사항 등의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 방법

2019년 상반기까지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조직 100개의 인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및 유무선 매체를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중 담당자 부재, 내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제외한 60개(공공기관 및 공기업 34개, 일반 기업 26개) 인증 취득 기업 및 조직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ISO 37001 인증 취득 기업 및 기관의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해당 인증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응답자들의 해당 조직 근무 연수는 평균 9.6년으로 본 조사에 응답하기에 충분한 지식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Ⅳ.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4.1 실태조사 결과

먼저 ISO 37001 인증 취득 목적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중복 선택 가능).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인증 취득으로 인한 조직의 '청렴' 이미지 제고가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본 인증의 본연의 취지인 뇌물수수 및 부패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가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2> ISO 37001 인증 취득 목적

특히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분야는 '경영성과 개선'에 대한 소구가 인증 취득의 목적에 있어 일반 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일반 기업 분야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보다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과 '국내법규 준수', '우선 구매 및 평가'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분야가 일반 기업 분야와 달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영평가에서 ISO 37001 인증에 대한 취득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향후 공기업의 인증 취득 확대를 위해서는 경영평가의 반영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기업은 경쟁우위와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분야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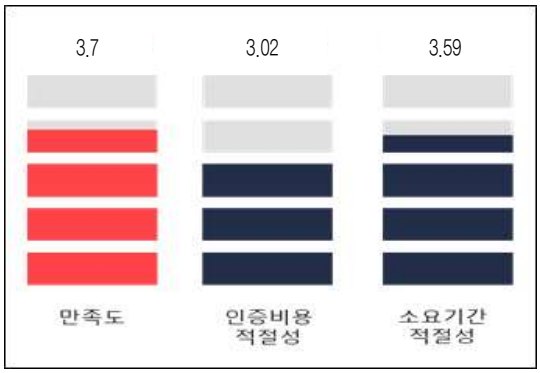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그림 3>과 같다. 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절반인 30개에 해당하였으며, 평균 비용은 약 1,905만원인 것으로 나탔났다. 인증 취득을 위해 준비한 기간은 평균 7.75개월, 인증 획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은 평균 73.05일, 약 1,09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 ISO 37001 인증 취득 과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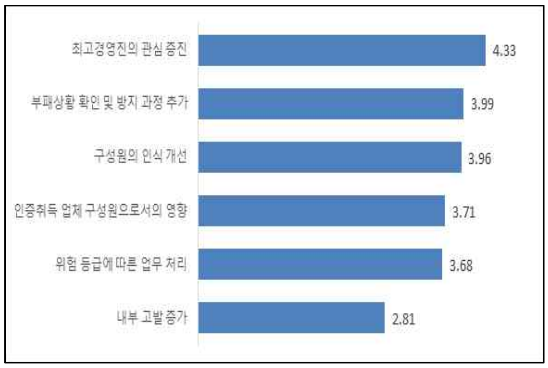
유형	컨설팅 비율	컨설팅 비용(만원)	인증 비용(만원)	준비 기간(월)	인증 소요(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	20	1,536	719	8.1	62.7
일반기업	10	2,274	1,465	7.4	83.4
전체(평균)	30(50%)	1,905	1,092	7.75	73.05

이러한 인증 취득 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5점 만점 중 평균 3.7점으로(공공기관 및 공기업 3.94, 일반기업 3.46)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은 이유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증 심사원 및 인증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이 불만족 이유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3.02점(공공기관 및 공기업 3.04, 일반기업 3.0), 기간에 대해서는 3.59점으로(공공기관 및 공기업 3.75, 일반기업 3.43) 나타나 기간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SO 37001 인증 취득에 대한 기대성과 달성 여부와 실제적인 기업의 변화 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기대



<그림 3> ISO 37001 취득 만족도



<그림 4> ISO 37001 취득 후 조직의 변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ISO 37001이 도입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기대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 후 3년 후 시행되는 사후심사 과정을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봐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SO 37001 인증 취득 후 조직의 인식 변화에 대한 조사는 인증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구매 및 영업 부서 등과 같이 뇌물 및 부패에 취약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질문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의 변화에 있어 가장 높은 항목은 '반부패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높아졌다'는 항목으로 평균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 처리시 반부패 상황을 확인하고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이 추가되었다', '반부패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개선되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반부패에 대한 최고경영진 및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개선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부패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방지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ISO 37001 인증 취득이 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부패 관련 인식 조사와 관련 교육에 대한 시행도 각 82%, 96%로 반부패 관리를 위한 기업 및 조직의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한편 해당 인증기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증기관의 공신력과 전문성(경험) 및 노하우가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타 인증과의 연계성 및 교육 수료 등 인증기관과의 선험적 관계가 ISO 37001 인증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우려했던 컨설턴트의 권유로 인증기관을 선택하였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역시 인증의 도입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인증 시장의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SO 37001에 대한 기대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청렴사회를 위해 ISO 37001 인증의 확산이 필요하지만, 내실있는 인증의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및 인정기구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 인증 심사원의 역량 강화 및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며, ISO 37001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의 부여와 이를 위해 ISO 37001 인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2 ISO 37001 개선방안

반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대한민국을 조성하기 위

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ISO 37001 인증은 반부패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60여 개의 기업 및 조직이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및 조직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 리스크 최소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ISO 37001을 취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ISO 37001 인증 취득 과정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증대되고 업무 과정에 부패 상황을 확인하는 방지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비용 부담과 심사원 역량 등의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ISO 37001 인증이 확산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청렴 문화를 확산하여 국격을 높이기 위한 청렴 인증으로 ISO 37001 인증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ISO 37001 인증을 추진 및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ISO 37001 취득 목적에 있어서 경영성과 개선이 일반 기업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기적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등 반부패와 유사한 사항들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조직의 청렴도나 윤리경영 평가에서 ISO 37001 인증 취득을 부분적이라도 상호 인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업이 주도하여 ISO 37001 인증을 도입하고 협력업체에 대해 동반 성장 차원에서 인증의 도입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증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SO 37001 취득 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일반 기업의 경우 구매 평가에서의 '가산점'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인증 과정에서 비용의 부담이 낮은 만족도로 나타난 결과가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다음으로 ISO 37001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기업과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추구하는 '청렴' 및 '반부패'에 대한 진정성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통한 홍보 및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ISO 37001 인증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이유는 ISO 37001 인증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의 부족 때문이다[13]. 따라서 ISO 37001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 기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및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인증 추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입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후심사 과정을 추적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증기관의 신뢰성 및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 ISO 인증제도의 확산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신뢰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실 인증은 쉽게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증기관 및 컨설팅 기관이 상호 독립적이기보다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유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기관 등급제나 우수 인증기관의 선정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인증기관을 지정할 때 비영리 기관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017년 ISO 37001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이 도입된 이후 2019년까지 8개, 그리고 3개가 더 추가되어 전체 11개 국내 인증기관이 ISO 37001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3, 4].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의 인증기관이 ISO 37001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11개가 한국의 인증기관이라는 점은 반부패 관리에 대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관점에서 이해될 여지도 있다. 과거 ISO 9001의 경우 경쟁을 통해 인증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인증기관 지정을 늘린 결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인증이 발생한 사례를 신중하게 참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증기관의 자격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증 심사원의 역량에 관한 것이다. 실태조사에서도 인증 심사원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반부패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ISO 37001 인증 심사원은 조금 더 철저히 관리·감독될 필요가 있다. ISO/IEC TS 17021-9(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 인증기준)에 의하면 ISO 37001 인증 심사자는 '직간접 지급', '급행료', '비재무적 이익이나 관점', '이행 상충' 등 뇌물수수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1]. 이러한 관련 지식은 이론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실무 경험이 중요한 지식이다. 그러나 KAR-ABMAC-01(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 인증기준)의 관련 실무 경력 요건은 2년에 불과하며 뇌물방지와 직접적 관련성이 다소 적은 업무들도 폭넓게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인증기관의 ISO 37001 인증 심사원들은 주로 기존 타 인증 심사 자격 소지자들이 3일간의 자격전환 과정을 통해 ISO 37001 인증 자격을 취득하여 심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인증 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 요건의 강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사원 등록 후 효율적인 심사원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SO 37001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증 네트워크의 활용이다. 인정기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중심이 되어 인증기관 및 인증취득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통해 ISO 37001 인증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으며, 심사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ISO 인증 네트워크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정기구의 위상과 역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국정 과제의 하나로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5]. ISO 37001 인증은 정부의 국정 과제의 실현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ISO 37001 인증은 국내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부패와 관련한 조직의 건전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9]. 실제로 ISO 37001 인증을 통해 부패방지계획의 수립, 반부패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투명성 강화, 전 사회적 반부패 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2020년 현재 약 160여 개의 기업 및 조직이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아직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조직의 수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업체에 치우쳐져 있다. 따라서 반부패 관리를 위해 ISO 37001 인증의 확산 방안도 고민해야 지만 기존의 ISO 인증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ISO 37001 인증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기업 및 조직들은 기업 이미지 개선, 리스크 감소 등의 목적으로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취득 과정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증 비용과 인증 심사원 역량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증 취득 후 반부패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증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인식이 증진되고, 업무에서 반부패를 확인하고 방지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증 취득 업체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들도 청렴한 사회를 위해 ISO 37001 인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증의 확산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면서 차츰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ISO 37001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경영평가 시 ISO 37001 인증 취득의 반영, 가산점 및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실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하여 인증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ISO 인증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인증의 관리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증기관과 인증 심사원의 역량과 자격을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하여 ISO 37001 인증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조직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인증기관 및 심사원의 전문성 등의 역량 및 자격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부실인증의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인증기관 뿐 아니라 심사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SO 37001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인증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홍보와 교육뿐만 아니라 인증기관 및 심사원의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반부패는 '문화'이기 때문에 인증이라는 '제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ISO 37001 인증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신뢰 확보의 과정'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청렴문화를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에 큰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부패 관리를 위한 효과적 툴로 인식되는 IS0 37001 인증에 대한 국내 현황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속적으로 3년 주기의 사후심사를 받은 업체들을 추적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Acknowledgment

이 연구는 2020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8335,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참고문헌

[1] 조창훈, "글로벌 윤리규범 ISO 37001의 이해와 부실 인증 리스크," 윤리경영연구, 제18권, 제2호, 2019, pp.147-168.

[2] 박준영 · 양현상, "투명한 방위산업을 위한 국제적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추진 방안 연구," 국방과 기술, 제480호, 2019, pp.110-117.

[3] 한국인정지원센터, ISO 37001 제정배경 및 도입 현황, 2019.

[4] 한국인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ab.or.kr

[5] 한성욱, "반부패 규제 강화와 기업의 대응 – 글로벌 반부패 규제 강화와 ISO 37001," Deloitte Anjin Review, No.9, 2018, pp.21-29.

[6] 최지연 · 이상봉 · 정길호 · 강미영, "공산품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평가 및 인증제도의 개

선 방향," 표준과 표준화 연구, 제8권, 제1호, 2018, pp.79-101.
[7] 천경훈, "부패방지와 사회법,"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9, pp.91-119.
[8] 신봉기, "부패방지 법제의 연구범위와 주요 쟁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제1권 제1호, 2018, pp.3-42.
[9] Valerio Brescia, "Corruption and ISO 37001: A new instrument to prevent it i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World Journal of Accounting, Finance and Engineering, Vol.1, No.1, 2017, pp.1-14.
[10] Jianwei Fang, "Local Chinese regulator develops antu-bribery management system based on ISO 37001," The FCPA Blog, 2017. https://fcpablog.com/2017/7/31/jerry-fang-local -chinese-regulator-develops-anti-bribery-man/.
[11] Kristy Grant-Hart, Diana Trevley, "Microsoft and Wal-Mart seek ISO 37001 Anti-bribery Certification," The FCPA Blog, 2017. https://fcpablog.com/2017/5/11/microsoft-and-wal-mart-seek-iso-37001-anti-bribery-certifica/
[1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 2019.
[13] 전병호,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ISO 37001)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대 및 인지도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6권, 제2호, 2020, pp.95-104.
[14] 박승구 · 이재연 · 박승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문헌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7권, 제1호, 2011, pp.95-110.
[15] 국민권익위원회, ISO 인증제도 투명성 · 공정성 제고, 2010.
[16] 산업자원부, ISO 9000: 2000에 대비한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성 대책, 2000
[17] 국가기술표준원,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연구, 2000.

■ 저자소개 ■

전 병 호
(Jun Byoungho)

2008년 9월~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2008년 2월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전략, 중소기업 정보화, 표준 및 적합성 평가, 표준경영, SNS 활용
E-mail : bojun00@swu.ac.kr

김 재 영
(Kim Jaeyoung)

2015년 9월~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학경영학부 조교수
2013년 2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비즈니스 모델, 기술경영, 표준경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E-mail : korean4u@korea.ac.kr

강 병 구
(Kang Byunggoo)

1990년 3월~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학경영학부 교수
1989년 2월 Georgia State University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TBT, 표준 인력 양성
E-mail : bgkang@korea.ac.kr

논문접수일 : 2020년 8월 26일
수 정 일 : 2020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1일